신뢰와 혁신 국민과 함께 KBS
2025 KBS 방송지표

KBS 사보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Vol. 777

KBS 토일 미니시리즈 전격 편성
마동석 주연 〈트웰브〉 8월 출격!

다가오는 8월, KBS 드라마가 그동안 시도한 적 없는 파격적인 편성으로 획기적인 변신을 꾀한다. KBS는 현재 2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수목 미니시리즈를 8월부터 주말인 토일 시간대로 옮겨 편성하기로 했다. 경쟁력 있는 주말드라마에 이어 토일 미니시리즈까지 몰아보게 함으로써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청자들의 채널 고정을 유도하고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것. 스타 배우가 출연하는 액션 히어로, 휴먼 범죄 스릴러와 같은 다양한 장르를 내세운 '텐트폴(Tentpole)' 편성 전략이 핵심이다.



한국형 히어로 드라마 〈트웰브〉 기대감

토일 미니시리즈의 첫 테이프를 끊을 주자는 '마블리' 마동석 주연의 〈트웰브〉다. 〈트웰브〉는 열두 천사가 인간 세계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우는 8부작 액션 히어로 드라마. 동양 문화를 모티브로 한 독보적인 세계관으로 12지신 캐릭터 군단의 이야기를 정교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태산(마동석), 오귀(박형식), 원승(서인국), 마록(성동일), 미르(이주빈) 등 막강한 캐스팅으로 무장한 〈트웰브〉는 한국형 히어로 드라마의 새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8월 23일(토) 밤 9시 20분, KBS 2TV에서 베일을 벗는다.

이영애 복귀작 〈은수 좋은 날〉 9월 방송

또 다른 기대작은 1999년 〈초대〉 이후 26년 만에 KBS 드라마에 복귀하는 이영애가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으는 〈은수 좋은 날〉이다. 9월에 찾아올 이영애, 김영광 주연의 〈은수 좋은 날〉은 평범한 학부모와 비밀스러운 선생의 위태롭고 은밀한 동업을 다룬 이야기. 가족을 지키고 싶은 학부모 은수(이영애)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선생 이경(김영광)이 마약 가방 하나로 엮이게 되고, 베테랑 형사 태구(박용우)가 이들을 쫓으면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스릴 만점 액션으로 무장한 웰메이드 범죄 스릴러다.

편성 책임자인 최성민 KBS 콘텐츠전략본부장은 "주말드라마의 강자인 KBS가 연달아 미니시리즈까지 블록 편성하면 2023년 말 〈고려 거란 전쟁〉 편성 때처럼 주말 저녁 시간대 2TV 채널 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말드라마의 가족 단위 시청자뿐만 아니라 2049 시청자까지 유입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S 2 새 드라마를 소개합니다!

주말드라마 〈화려한 날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드라마가 주말 안방극장을 찾아간다. 좁은 취업문을 뚫고 입사한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결혼은 뒷전인 아들(정일우)과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식을 뒷바라지하다 어느새 정년을 맞은 아버지(천호진). 새 주말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이들 부자 사이에 벌어진 갈등과 화해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조명하고 동시대를 사는 청년, 중년, 노년 세대의 희로애락을 다양하게 담아낸다. 천호진 배우의 깊은 눈빛을 담은 스틸컷이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본격 가족 서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고 시청률 45.1%(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을 찍은 2TV 〈황금빛 내 인생〉의 김형석 감독과 소현경 작가가 7년 만에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 8월 9일(토) 밤 8시 첫 방송

수목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



비 내리던 어느 밤, 망설이는 표정으로 창밖을 서성이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카페에 들어선다. 카페 안 남자 직원에게 굳은 표정으로 그가 건넨 말은, "나야, 지은이."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는 하루아침에 남자로 변해버린 여자친구(아린)와 그녀를 포기할 수 없는 남자(윤산하)가 펼치는 좌충우돌 로맨스 드라마다. 수목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의 후속작으로 2TV 〈경찰수업〉, 〈99억의 여자〉를 연출한 유관모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아이돌 출신 배우 윤산하, 아린 두 주연과 데뷔 4년 차에 접어든 배우 유정후, KBS 드라마에 첫 도전하는 가수 츄 등 신예 배우들이 청춘의 감성을 정조준한다.

▶ 7월 23일(수) 밤 9시 50분 첫 방송

〈이본의 라라랜드〉로 돌아온 '전설의 DJ' 이본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법 같기를"

"저는 오늘부터 매일 두 시간, 일상에 작은 틈을 내볼 거예요. 한 편의 영화 같은 행복이 우리의 매일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서 기분이 무~~~~지 좋은 그런 여자가 있어요. 여기는 이본의 라라랜드!" 순간, 실시간 채팅창은 난리가 났다. "와~ 대박~!" "와우~ 이본 까만콩이당^^" "이게 정말 몇 년 만인가요?" "너무 감격스러워 울컥했어요." "〈볼륨〉 듣던 초등학생이 지금은 40대 가장이 되었네용. ㅋㅋㅋㅋ" "본디라고 부르면 되나요? ㅎㅎ"

KBS 쿨FM 〈이본의 볼륨을 높여요〉(1995~2004년)의 '영원한 뽀니 언니' 이본이 21년 만에 라디오 DJ로 돌아왔다. KBS 2라디오(106.1㎒)의 새 프로그램 〈이본의 라라랜드〉로 매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청취자들과 만난다. 6월 30일(월) 제작 발표회에 참석한 이본은 꿈같은 추억을 선물한 영화 〈라라랜드〉(2016)처럼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법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Q 〈라라랜드〉라는 제목은 어떻게 정했나요?

제가 다시 라디오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이름으로 가면 내가 행복할까.' 생각해 봤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법 같았으면 좋겠고,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영화 〈라라랜드〉를 볼 때의 그 기분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해 봤더니 너무 좋다며 받아들여 주셔서 〈이본의 라라랜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킬링타임, 리슨업 등등 끌리는 이름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라라랜드한테 졌네요. (웃음)



Q 주변 반응은요?

다시 시작한다고 일절 얘기 안 했어요. 지금도 모르시는 선후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공연 보러 갔다가 채시라 언니한테 살짝 얘기했어요. 저보다도 더 기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첫 방송에 많은 축하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 오다가다 '어, 얘 이본 아니야?'하며 다시 〈이본의 라라랜드〉가 생겼다는 걸 알아만 주셔도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Q 노래 수업을 꾸준히 받고 있다면서요. 혹시 음반을 낼 계획이 있는지?

시그널이며 로고며 남들과 다른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본의 색깔을 담아서 이본스러운 시그널을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음악 하는 밴드 후배들한테 '내가 〈라라랜드〉 하는데 시그널이나 로고 만들어주면 안 돼?' '어, 진짜요?'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음악이 나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인 거예요. '이거 내가 부를게.' '진짜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이 중에 정말 탐나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싱글로 제대로 연습해서 불러보면 안 돼?' 지금 편곡 들어갔어요. 싱글 앨범으로 곧 나올 거예요.

Q 본인만의 '매직 뮤직'을 꼽는다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의 축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정말 정신없이 놀았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고요. 가장 정신없이 신나게 놀았던 때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Q 같이 해보고 싶은 게스트는?

서태지 씨도 만나보고 싶고요. 솔리드 멤버들도 만나보고 싶고. 김건모, 신승훈, 조피디, 박기영, 박정현, 린.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많네요. 제니, 블랙핑크. BTS 좋다. 너무 멋있고 음악도 너무 좋고. 지디 노래도 좋아하고요.

Q 앞으로 목표는 뭔가요?

진심을 다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의지하고 경험했던 그 길을 선택해서 갈 거고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볼륨을 높여요〉만큼 장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라라랜드〉도 도저히 방송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기까지 뿌리를 내려보면 어떨까 해요. 건강도 잘 지켜서 늘 〈이본의 라라랜드〉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온 '한민족 큰잔치' 우즈베크서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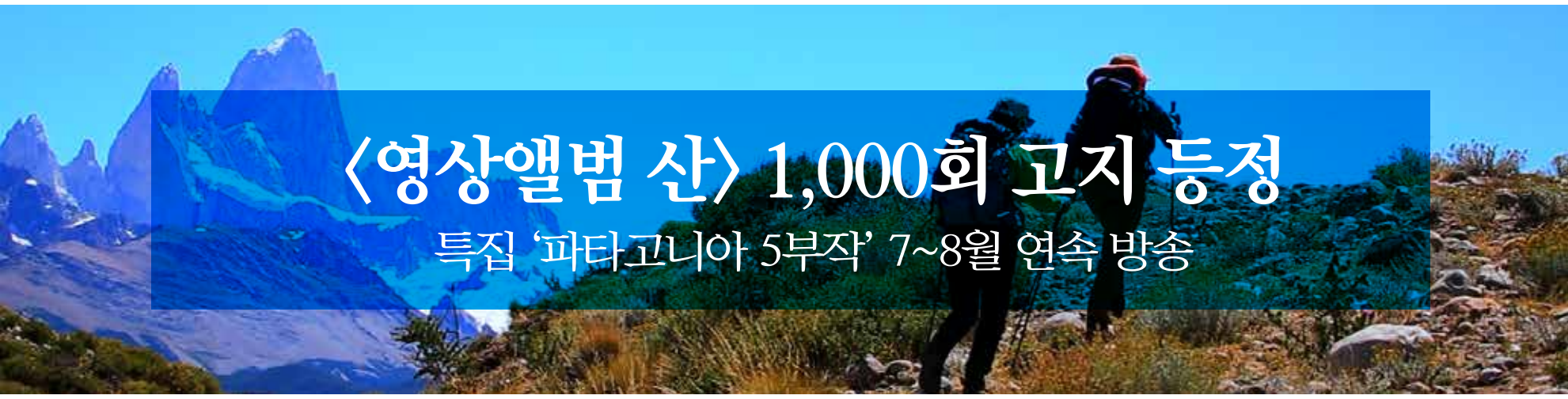


6월 4일(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리랑이 공연장을 가득 메우며 울려 퍼졌다. 고려인의 우즈베크 정착 88주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5 우즈베키스탄 한민족 큰잔치-하나의 꿈 하나의 노래〉는 가슴 뛰는 아리랑 선율과 함께 막을 내렸다. KBS라디오 한민족방송과 2라디오(HappyFM)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행사는 2019년 '한민족 큰잔치'라는 이름으로 현지에서 첫선을 보인 뒤, 코로나19로 중단됐다 올해 6년 만에 재개했다. 현장 분위기는 460석 전석이 관객들로 가득 찰 만큼 뜨거웠다. 가수 주현미, 박구윤, 강민주, 이치현을 비롯해 우즈베크 정부로부터 공훈 가수 칭호를 얻은 고려인 신갈리나, 우즈베크가 주최한 K-POP 월드페스티벌에서 본선에 진출한 댄스그룹 강한녀석들과 아그마 등이 출연해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고려인 최초로 우즈베크 하원의원에 선출된 박빅토르 고려인문화협회장은 KBS라디오 측에 감사패를 전하면서 "교류를 지속하며 우즈베키스탄을 오래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본방송은 KBS 한민족방송에서 8월 14일(목) 오후 6시, KBS 2라디오에서 15일(금) 오전 9시부터 들을 수 있다.

한해, 〈키스더라디오〉 진행



가수 한해가 KBS 쿨FM 〈키스더라디오〉의 13대 DJ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해는 "라디오 키드로서, 역사 깊은 〈키스더라디오〉를 진행하게 돼 영광"이라며 "청취자들과 하나씩 이야기를 쌓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7월 7일(월) 첫 방송엔 함께 앨범을 낸 개그맨 문세윤이 찾아와 특별한 케미를 뽐냈고 국내 음원 차트를 휩쓴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와 쿨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김예원 등이 스튜디오를 찾아 DJ 한해와 함께했다. 〈한해의 키스더라디오〉는 매일 밤 10시 KBS 쿨FM(89.1㎒)에서 방송되며 'KBS KONG'과 'KBS+' 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영상앨범 산〉 1,000회 고지 등정

특집 '파타고니아 5부작' 7~8월 연속 방송

하늘과 가장 가까이 얼굴을 맞댄 땅. 산이 품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물론 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생생하게 담아온 국내 최장수 산행 전문 프로그램이자 등산 인구 3천만 시대를 선도해 온 KBS 2TV 〈영상앨범 산〉이 2006년 1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장장 20년을 헤아리는 기나긴 여정 끝에 1,000회 고지 등정이라는 새 역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년 동안 누빈 '지구 둘레 80바퀴'

분단 이후 59년 만에 공개된 북녘땅 내금강의 비경, 국내 최초로 소개된 은둔의 왕국 부탄의 산,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이루는 캅카스산맥의 장엄함, 지구 반대편 미지의 땅 남미 대륙까지 아시아와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남극을 잇는 대장정의 기록. 그동안 제작진이 이동한 거리만 지구 둘레 80바퀴가 넘는다.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에 걸맞게 국내 등산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산 정상에서 '야호' 하고 외치면 동식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방송으로 꾸준하게 알린 덕분에 이젠 함성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세계 각지를 누빈 〈영상앨범 산〉의 '산 증인' 김석원 PD(프로라인온TV 대표)는 "우연히 박영석 대장과 K2 촬영하러 갔다가 영국인 가족이 트레킹하는 걸 봤다. '야, 이런 데 트레킹하러 오네? 일반인들이 베이스캠프까지는 갈 수 있구나.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해볼까?' 그래서 기획안을 넣었더니 '하자!' 그래서 시작했다. 그렇게 산악인이 됐다."고 회상했다.

파타고니아가 선사하는 '대자연의 경이'

1,000회 특집은 머나먼 지구 반대편, 태초의 자연을 품은 남아메리카 최남단 '파타고니아 5부작'으로 꾸며진다. 아르헨티나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을 찾아 세계 5대 미봉 중 하나인 피츠로이산과 지구상에서 가장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 세로토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빙하인 페리토 모레노 빙하를 만나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껴본다. 7월 13일 첫 방송에 이어 20일과 27일, 그 짜릿한 여정이 펼쳐진다. 8월 3일과 10일(1,000회)에는 세계 3대 트레킹 코스의 하나인 칠레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으로 향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은 W 트레일에 가면 파타고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빙산인 그레이 빙하와 빙하 호수를 볼 수 있다. 신비로운 회색 빙하와 270도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산봉우리가 그려내는 풍광이 단연 압권. 8월 17일에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새 변화 모색…'최고의 순간' 쇼츠 공개

1,000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도 꾀한다. 젊은 세대와 외국인 등으로 출연진을 다변화하고, 해외의 명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프로그램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구상. 올 한 해 20회 이상 방송을 통해 해외 명산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젊은 시청층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숏폼 콘텐츠와 화제성 있는 릴스 등의 제작도 고민하고 있다. 연출을 맡은 고정훈 PD는 "1,000회 특집에 맞춰 그동안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고 화제가 됐던 영상을 20~25개 정도 쇼츠로 제작해 SNS에 공개하고, 방송 다시보기 링크도 달아서 관심 있는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영상앨범 산〉 1,000회 특집은 7월 13일(일)부터 6주 연속으로 매주 일요일 아침 6시 55분 KBS 2TV를 통해 시청자와 함께한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이유 있는 '약진'



tvN 토일드라마와 MBC, SBS의 금토드라마, JTBC 예능이 격돌하는 토요일 밤, 한 시사 프로그램이 보란 듯 시청률 순위 최상단에 이름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동향을 발 빠르고 생생하게 전하는 KBS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 바로 그 주인공. 〈세계는 지금〉은 6월 14일 방송에서 MBC와 SBS 금토드라마보다 높은 시청률 4.9%를 찍으며 동 시간대 시청률(수도권 가구 기준) 3위를 차지했다. 대체 비결이 뭘까?

KBS 편성전략부 분석 결과를 보면 〈세계는 지금〉 시청률은 통상 타사 드라마가 시작하면 조금씩 빠진다. 하지만 6월 14일 분당 시청률은 타사 드라마가 시작한 뒤에 오히려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 이같은 약진을 타사 드라마의 부진이라는 '외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드라마를 기다렸다가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들과 〈세계는 지금〉을 기다렸다가 본방을 보는 사람들은 시청 성향이 달라서, 〈세계는 지금〉과 타사 드라마의 시청률 상관관계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은 직전에 편성되는 〈뉴스 9〉와 비슷한 시청층을 공유한다. 6월 14일 〈뉴스 9〉 시청률은 7%였고, 〈세계는 지금〉도 4.6%로 평소보다 높은 시작점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이날 〈세계는 지금〉의 시청률은 시작점보다 더 높았다. 또 다른 '내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의미다. 〈세계는 지금〉은 이날 격화하는 이란-이스라엘 전쟁,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트럼프발 분쟁을 다뤘다. 관련 아이템 모두 시청률 4.9%를 넘었다.

결국, 차이를 만들어낸 건 '콘텐츠 경쟁력'이었다.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콘텐츠가 재미있는 건 아니다. 흥미로운 소재를 잘 가공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 6월 14일 〈세계는 지금〉의 시청률 약진은 그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이뤄낸 빛나는 성과다. 4월 26일, 400회를 맞은 지상파 유일의 국제 시사 프로그램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 토요일 밤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약하길 기대해 보자.

장강명의 추천 도서

여름 휴가를 함께할 책은?

KBS 1라디오 〈작은 서점–장강명의 인생책〉 진행자 장강명 작가와 함께 준비한 여름 특집! '휴가지에서 읽기 좋은 책 5권'을 소개합니다.



흔히 휴가지에서 읽을 책이라고 하면 미스터리나 스릴러 소설을 떠올리죠.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비행기 이코노미 좌석에 개인용 디스플레이가 흔치 않던 시절엔 그런 엔터테인먼트 소설이 유용한 여행 동반자였을 듯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비행기든 호텔이든 어디에서나 다양한 오락거리에 쉽게 접속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휴가에 의미를 더해줄 책들을 추천해봅니다. 진지하면서도 재미있는 책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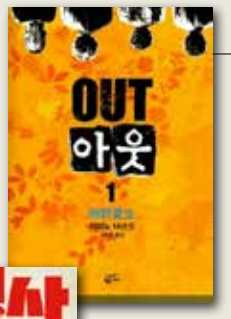
폭격기의 달이 뜨면 (에릭 라슨, 생각의힘)

2차 세계대전 초기, 윈스턴 처칠이 총리가 되고 나서 1년여 동안을 다룬 논픽션입니다. 흥미진진하고,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영국인들이 처칠을 사랑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그냥 보여줍니다. 분투하는 일상을 보낸 분들께, 휴가 기간에 각오를 다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정치학자인 김지윤 박사님의 유쾌한 책 소개를 <작은 서점> 7월 3일(목) 방송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웃 1, 2 (기리노 나쓰오, 황금가지)

일상이 지겨우십니까? 휴가도 여전히 일상의 연장으로 느껴지시나요?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기리노 나쓰오의 일상 스릴러 『아웃』에서는 인생 막다른 골목에 이른 네 여성들이 '아웃'되는 과정이 박력 있게 펼쳐집니다. 다 읽고 나면 일상이 소중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래, 떠나버리자!' 하는 결단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읽는 내내 심장이 쫄깃하실 겁니다. 6월 26일(목) 방송을 함께해 주신 김현아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님의 인생책입니다.



숲에서 우주를 보다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 에이도스)

이벤트 없이 집에서 조용히 휴가를 보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 기묘한 자연 관찰 에세이를 추천합니다. 문자 그대로 한 평도 안 되는 익숙한 공간에서 우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조화로운 삶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이자 인기 작가인 이정모 펭귄각종과학관 관장님이 4월 17일(목) 방송분에서 소개한 인생책이었습니다.





인생 (위화, 푸른숲)

휴가는 일상을 성찰하는 시기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결국에는 '산다는 건 뭘까' 하는 물음에 맞닥뜨리죠. 위화의 장편소설 『인생』은 그 어려운 질문에 아주 쉬운 문장으로 답을 들려줍니다. 웃다가 울다가 하면서 읽게 되고, 다 읽으면 '아,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마법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7월 10일(목)에 방송된 조승리 작가님의 추천작은 제 인생책이기도 합니다.



형사 박미옥 (박미옥, 이야기장수)

어떤 분들은 휴가 기간에 인생 2막이나 새 커리어를 고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미옥 작가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 인생 2막을 가장 멋있게 사는 분입니다. 박 작가님의 인생 1막도 멋있었지요. 한국 최초 여성 강력팀 형사로, 또 최초의 여성 강력반장으로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형사 박미옥』은 그 1막과 2막 이야기가 모두 담긴 에세이입니다. 박 작가님은 <작은 서점> 5월 23일(금) 방송분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와 함께한 쿨FM 60년



우리나라 FM 라디오 방송 시대를 연 KBS 쿨FM이 개국 60주년을 맞았다. 6월 26일(목)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콩 스튜디오에 열린 기념행사에선 쿨FM에서 현재 진행을 맡고 있는 이금희, 이현우, 조정식, 이은지, 효정, 윤정수, 남창희, 아나운서 이슬기와 제작진 40여 명이 축하 인사를 나눴으며 김구라, 홍진경, 이특, 장윤주 등 역대 DJ의 축전이 쏟아졌다.

쿨FM은 전신 서울FM방송이 1965년 6월 26일 호출부호 HLCD-FM, 주파수 89.1㎒로 전파를 쏘아 올리며 첫발을 내디뎠다. 1966년 동양방송이 서울FM방송을 인수해 동양FM방송으로 간판을 바꿨고 1980년 동양방송이 KBS로 합병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긴 역사만큼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이들도 빼놓을 수 없다. 〈이현우의 음악앨범〉 이현우와 〈사랑하기 좋은날 이금희입니다〉 이금희가 각각 18년째 라디오 부스를 지키고 있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길에 활력을 더해온 〈FM대행진〉이 오는 11월 50주년을 맞는다. 쿨FM 유튜브 채널은 개설 7년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누적 조회수 9억 회를 넘어섰다. 김홍범 쿨FM CP는 "3년 안에 라디오 음악 방송을 통틀어 쿨FM의 청취율을 1위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독수리 만세!" 커피차 이벤트



주말드라마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제작진을 응원하기 위해 박장범 KBS 사장이 7월 3일(목)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건물 앞에서 커피차 이벤트를 열었다.



KBS-RAI 미디어 협력 양해각서 체결



KBS가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와 미디어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94차 유럽방송연맹(EBU) 총회에 참석한 민필규 KBS 전략기획실장이 7월 3일(목) RAI 대표단을 만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박장범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편집인 이재원 **취재** 이효연 김도영 김석 김만화
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113 / kbssabo@kbs.co.kr
사진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김채원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